[UCI]I804:24011-200000263337

2012년 8월
교육학석사(일어교육)학위논문

芥川龍之介의 작품을 통해 본 주체와 도덕

-「羅生門」,「鼻」,「一塊の土」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김 현 희

芥川龍之介의 작품을 통해 본 주체와 도덕

- 「羅生門」,「鼻」,「一塊の土」를 중심으로 -

The Subjecthood and the Morality through Akutagawa Ryunosuke's Work

- focused on Rashōmon, The Nose, A Clod of Earth -

2012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김 현 희

芥川龍之介의 작품을 통해 본 주체와 도덕

지도교수 김 희 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김 현 희

김현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인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영석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희조 인

2012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차

【ABSTRACT】

Ⅰ. 서론.....1

Ⅱ. A. 주체의 관점.....4

1.「鼻」.....4
a. 「鼻」의 젠치(禅智)의 주체.....4
b. 젠치- 소세키.....12
c. 젠치의 모순.....16
2.「一塊の土」.....20
a. 「一塊の土」의 오타미(お民)의 주체.....20
b. 노동.....26
3.「羅生門」.....28
a.「羅生門」의 하인(下人)의 주체.....28
b. 주체의 수동성.....29

B. 도덕의 관점.....32

1.「一塊の土」.....32
a.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의 도덕.....32
b. 전통도덕의 모순.....35
2.「羅生門」.....41
a. 도덕, 센티멘탈리즘, 딜레마.....41
3.「鼻」.....49
a. 젠치(승려)의 도덕.....49

Ⅲ. 결론.....54

【참고문헌】.....57

ABSTRACT

The Subjecthood and the Morality through Akutagawa Ryunosuke's Work

- focused on Rashōmon, The Nose, A Clod of Earth -

Kim Hyun-Hee
Advisor : Prof. Kim Hee-jo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name of Akutagawa Ryunosuke will immediately bring to mind his grotesque images like long nose, old woman, monkey, kaffa, nervous breakdown, suicide, etc. From his short remark in Aphorisms by a Pygmy, I could discover his message on life and his humor as well, and read human nature and contradiction repeated in life rather than darkness and grotesqueness dominated in his image.

His grotesqueness is well described in Kim Nan-Hee's Understanding of Akutagawa Ryunosuke's Literature. This book refers 'grotesque' to gothic novel, in literary terms, and defines it as 'something hideous and grotesque enough to be spine-chilling.' In Rashomon, a crow flying at corpse is seen as a transformation of ruined castle or monastery frequently appeared in gothic novels, and an old woman is interpreted as an image close to witch rather than human. Furthermore, madness(hysteria, demon) and delusion(doppelganger) in his works are analyzed. Whatever it's grotesque in his works is interpreted, on the basis of

Cesare Lombroso's theory and regarded as extraordinary sensitivity, or genius of insanity, and his having written such works is seen as a means to express a alienated world.

This study starts with the process of clearing the grotesqueness dominated in Akutagawa's works.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strong images are fragmented and the remembered parts in his novels are connected. From The Nose, we look at the foolishness and contradiction of monk Zenchi; from Rashomon, human's contradiction in front of life or death beyond this novel's penetrating images - rain, corpse, old woman, hair, and snake; and from A Clod of Earth, read absurdity of Otami's life rather than Osmi's selfishness.

From The Nose, A Clod of Earth, and Rashomon, respectively, protagonist character's constadiction is interpreted from the subject and moral idea, and so positive directions for which humans should go forward are to be sought after.

Zenchi in The Nose can be divided into two; the individual subject and the predicative subject. Zenchi's agony and sense of alienation is investigated from predicative subject.

We compare Zenchi's sense of inferiority with Soseki's and look for the subject recognized by Soseki during his years of studying in the UK, in other words, self-centeredness as a national identity mentioned by Park Yu-Ha. We look for "I" from Zenchi's contradiction.

We look at moral interpretation based on monk's ethical belief.

From Otami's way of life in A Clod of Earth, we look at the identity and status of a woman and social awareness toward woman at the time and read the absurdity of life from Otami's labor and death.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Otami and a virtuous woman, we investigate the subject and the moral idea. We look at the moral interpretation from the concept of traditional morals lectured by Soseki and Akutagawa and discuss the contradiction in traditional morals.

We look at the changes in human behavior and the subject on the 'problems of life (living)' from the message sent by social status of 'servant' in Rashomon as long as there

is no free will. For moral interpretation, we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moral values through the definition and flow of virtue based on the concept of virtue.

To define the subject we refer to Lee Jeong-Woo's What is the Subject?(Greenb), the Subject(Sanhae), the Wrinkle, the Offshoot, the Echo (Georeum), and the Roots of Concept(Sanhae) and Natsume Soseki's My Individualism and others(bookworld).

From Park Yu-Ha's National Identity and Gender (literary neighborhood) which interpreted Natsume Soseki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subject, we look at the modernity of Natsume Soseki and the formation of modern self-centeredness.

'Moral' interpretation was selected as subject after reading Akutagawa's Tomorrow's Moral. Of his research works, A Clod of Earth is a work written by Akutagawa when he was 32 years old (1924, Taisho 13 yrs). Akutagawa killed himself when he was 35 years old(1927, Showa 2 yrs). Three years before he died (1924, Taisho 13 yrs), he gave a lecture titled Tomorrow's Moral for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From the fact that A Clod of Earth was published on the same year as the time when he gave a lecture, we attempt to read morals inherent in his novels, on the premise that there would have been many considerations on morals. On the other hand, from the evidence that his spiritual mentor Natsume Soseki gave a lecture on Literature and Morality in Osaka (1911, Meiji 44 yrs), Akutagawa seemed to be influenced a lot by Soseki's lecture. This can be inferred, based on the evidence that the contents of lecture are almost similar.

To define 'moral,' we refer to Lee Jeong-Woo's Roots of Concept(Sanhae), Tradition, Modern, and Post-modern(Greenb), and Kant's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acanet) and conduct an analysis based on the contents of lecture done by Soseki and Akutagawa.

For an original story of the novel, we referred to Chikuma Bungo.

I. 서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1]를 떠올리면 긴코, 노파, 원숭이, 갓파 그리고 신경쇠약, 자살 등 괴기(怪奇, Grotesque)한 이미지가 우선한다.「侏儒の言葉」의 짧은 경구 속에서 인생에 주는 메시지와 해학(諧謔)을 발견하고 아쿠타가와의 이미지에서 크게 자리 잡았던 어두움과 괴기함이 아닌 인간의 본질과 본성, 삶 속에서 반복되는 모순을 읽게 되었다.

아쿠타가와의 그로테스크(Grotesque)성에 대해서는 김난희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2]에 잘 나타나 있다. 위 책은 그로테스크를 문학용어로는 고딕소설로 칭하고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괴기스러운 것, 섬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羅生門」에서 시체를 쪼아 먹으러 오는 까마귀의 모습은 고딕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황폐한 성이나 수도원의 변형으로 보고, 등장인물 노파는 인간이 아닌 요괴(妖怪)에 가까운 이미지로 해석한다. 그 외에도 작품 속 광기(히스테리, 데몬 demon惡靈), 망상지각(도플갱어)을 분석적으로 살피고 있다. 아쿠타가와가 작품에서 그로테스크성을 띠는 것을 롬브로소[3]의 설로 해석하고 비상한 감수성, 즉 천재적 광기로 보며 그가 그러한 작품을 쓰는 것을 소외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은 아쿠타가와에게서 크게 자리했던 그로테스크적 형상을 지우는 과정

---

1) 芥川龍之介 (1892.3.1~1927.7.24) 매년 2회(1월 ·7월) 그를 기념하여 수여하는 아쿠타가와상이 있다. 이하 아쿠타가와로 표기.

2) 김난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109-132p 내용 함축.

3) 체사레 롬브로소 [Cesare Lombroso, 1835.11.6~1909.10.19] 형법학에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도입한 이탈리아의 정신의학자·법의학자. 범죄인류학의 창시자.
범죄자에게는 일정한 신체적 특징이 있음을 밝혀내고, 그러한 특징을 지닌 선천적 범죄인은 그 범죄적 소질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의 근거는 사회적 위험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쿠타가와의 광기를 선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에서 출발해본다. 강한 이미지가 편편이 나눠져 기억된 그의 소설들을 연결하는 의미도 크다.「鼻」를 통해서는 승려 젠치의 어리석음과 모순을 살펴보고,「羅生門」에서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주된 이미지인 비, 시체, 노파, 머리카락, 뱀을 넘어 극단적 상황 앞에 선 한 인간의 모순을 살펴보고, 「一塊の土」에서는 오스미의 이기성(利己性)이 아닌 오타미의 삶에서의 부조리를 읽고자 한다.

각 작품「鼻」,「一塊の土」,「羅生門」속 주인공의 모순을 주체(主體)와 도덕(道德)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 또한 모색하고자 한다.

「鼻」의 젠치를 '나'라는 개체성의 주체와 '술어적 주체'로 구분해 보고 술어적 주체를 통해 젠치의 고뇌와 소외감을 살펴본다.

젠치의 열등감을 소세키의 열등감과 비교해 보고 소세키가 영국유학에서 인식하게 된 '주체' 즉 자기본위(自己本位)를 박유하가 말하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로서의 소세키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젠치의 모순을 통해 '나'를 찾고자 한다.

도덕적 해석은 승려의 윤리관을 토대로 살펴본다.

「一塊の土」의 오타미의 삶의 방식을 통해 그 당시 여성의 신분과 지위,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오타미의 노동과 그녀의 죽음에서 삶의 부조리를 읽는다. 오타미와 열녀(烈女)의 관계를 통해 주체와 도덕을 고찰한다. 도덕적 해석은 소세키와 아쿠타가와가 강연한 전통도덕의 개념에서 살펴보고 전통도덕의 모순을 논한다.

「羅生門」의 하인(下人)이라는 신분이 주는 메시지에서 자율의지가 없는 한 인간의 행동변화와 '생명의 문제(생존)'에 관한 주체를 살펴본다. 도덕적 해석은 덕(德)의 개념에 입각하여 德의 정의와 흐름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찰해 본다.

'주체'에 대한 정의는 이정우의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4], 『주체 』(산

4) 근대 서양철학의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주체 개념을 이정우 고유의 사고 속에 녹여내 설명하였다. 저자는 '이름-자리'로부터의 탈주(바꾸어-나감)가 우리를 일정한 주체로 만들어 주며, 또한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줌을 설명한다.

해), 『주름, 갈래, 울림』(거름),『개념뿌리들』(산해)와 나쓰메 소세키의 『 나의 개인주의 외』(책세상)를 참고하였다.

‘근대적인 주체’의 시각으로 나쓰메 소세키를 해석한 박유하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문학동네)[5]를 통해 나쓰메 소세키의 근대(近代)를 살펴보고 근대적 자기본위(自己本位)의 성립 등을 알아보았다.

‘도덕’적 해석은 아쿠타가와의「내일의 도덕明日の道徳」이란 강연을 읽고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작품 중 「一塊の土」는 아쿠타가와가 만 32세[1924(다이쇼13)년]에 쓴 작품이다. 아쿠타가와는 1927(쇼와2)년 만 35세에 자살하였는데 그가 죽기 3년 전 1924(다이쇼13)년에 전국교육자협의회를 대상으로「내일의 도덕明日の道徳」이란 강연을 하였다.

「一塊の土」가 발표된 시기와 강연시기가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 道德에 관한 많은 고찰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소설 속에 내재된 도덕을 읽어내 보고자 한다. 한편 그의 정신적 스승인 나쓰메 소세키가 1911(메이지44)년 오사카에서 「문예와 도덕(文芸と道徳」을 강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쿠타가와는 소세키의 이 강연내용에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연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이를 추론해 본다.

‘도덕’에 대한 정의는 이정우의『개념뿌리들』(산해)와 마이클 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아카넷)』등을 참고하였고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의 강연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소설 원문은 ちくま文庫를 참고 하였다.

---

5) 나쓰메 소세키를 중심으로 하는 근현대 일본의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를 밝힌다. 일본을 국민국가로 만들어낸 근대성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

Ⅱ. A. 주체의 관점

1.「鼻」

a. 「鼻」의 젠치(禅智)의 주체

「鼻」,「一塊の土」,「羅生門」의 승려, 여자, 하인이라는 각기 다른 지위와 신분을 통해 주인공의 '주체'를 분석하고 주체가 갖는 개체성, 타자성, 자기의식, 시간성, 공간성을 토대로 각 작품을 비교 설명하여 보았다.

「鼻」에는 젠치내공(禅智内供) 6)이라는 한 승려의 자존과 불유쾌, 모순 등이 그려져 있고, 그가 하는 고민의 근원을 주체의 개념으로 분석해 본다.

먼저 이정우가 논한 '주체'의 정의를 토대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나'를 가리켜 '주체' 라 부른다. 인간의 삶은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며 인간은 이 '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의 개체성이며 '나'를 언표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성이 존립함을 의미한다. 이는 곧 自와 他가 구분됨을 전제한다. 이 自·他의 구분됨은 곧 나와 남을 가를 수 있는 의식 수준을 전제하고 이 의식수준을 '자기의식' 이라 한다. (『주체』, 산해, 11p~12p)

이 정의를 토대로 젠치의 '나'라는 자기의식, 곧 주체(主體) 는

나=젠치=승려=내공(內供)

위와 같이 등식화할 수 있다. 또한 주체는 '술어적 주체'라고 부를 수 있다. 술

---

6) 본래 내공(內供)이란 내공봉승(內供奉僧)의 약자. 이하 젠치(禅智) 로 표기. (개체성을 띤 주체로 보기 위하여 內供으로 칭하지 않고 이름(젠치)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음)

*인용시 서론에 밝힌 책의 저자이름은 생략함.

어적 주체란 '자신에게 붙은 술어들을 통해서 성립하는 주체'[7]를 말한다. 술어의 규정성을 통해 한사람의 주체가 타자들에게 드러남을 의미하고 있다. 「鼻」의 젠치를 술어적 주체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젠치는 승려이다.
젠치는 내공봉승(内供奉僧)이다.
젠치는 코가 길다.
젠치는 시종 남을 의식한다.
젠치는 자존심이 세다.
젠치는 소심하다.

젠치는 위 술어들에 대한 타자들의 인식을 내면화하면서 '젠치는 코가 길다'라는 술어를 통해 '나는 코가 길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갖게 된다. 이 내면화된 자기의식에 의해 젠치는 괴로워하고 있다.

다른 술어적 규정성인 내공봉승(内供奉僧)을 보자.

젠치의 내공(内供)이라는 직책은 내공봉승(内供奉僧)의 약자로 지덕(知德)을 겸비한 10명의 승려를 말한다. 이 선택된 내공은 궁중의 내도장(内道場, 왕실에서 부처를 공양하며 불도(佛道)를 닦던 집)에서 천황의 건강을 기원하는 독경을 읊는 일을 한다. 젠치에게 내공이라는 '술어적 주체'는 무의미해 보인다. 사미(沙彌, 불문에 갓 들어온 수도승)시절부터 괴로워했던 코에 대한 고민은 내공이라는 직위에 오른 다음에도 변함없기 때문이다. 일편단심 극락정토(極樂淨土)만을 갈앙(当来の浄土を渇仰)해야 하는 승려란 신분은 젠치를 더욱더 '긴 코에 집착'하게 한다(지덕을 겸비한 승려는 세인과 다를 거라는 일반인의 인식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작용한다).

소설에서 젠치는 '50'의 나이를 넘긴 승려로 이 '50'이라는 나이를 『논어 』

7) 『주체란 무엇인가 - 無位人에 관하여』, 그린비, 14p

「위정편(爲政編)」에서 말하는 지천명(知天命)이라는 것과 연관하여 살펴본다.

五十而知天命하고

쉰살에 天命을 알았고,

天命은 卽天道之流行而賦於物者니 乃事物所以當然之故也라 知此則知極其精하여 而不惑을 又不足言矣리라.
天命은 天道가 유행하여 사물에 부여한 것이니, 바로 사물에 당연한 바(道理)의 所以然이다. 이것을 안다면 아는 것이 그 精함을 지극히 하여 의혹하지 않음을 굳이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爲政 第二, 55p, 밑줄 인용자)

천명(天命)을 안다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소명, 섭리를 아는 것'으로 내가 그 소명과 섭리를 아는 것은 '精, 정기(精氣), 정신(精神)'을 극진히 하여 의혹(疑惑)을 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소설 속 '50(五十)'의 나이는 지천명을 알아야 할 한 승려의 온전함이 아닌 끝없는 세속적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어리석음, 부족함, 결여 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젠치의 어리석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개체 즉 주체는 자기와 타자를 가름으로써 주체가 된다. 일찍이 헤겔이 심오하게 분석해 주었듯이, 타자성otherness 없이는 주체성도 없다. 나를 나'이다' 라고 긍정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아닌 타자를 내가 '아닌'존재로서 나로부터 구분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아님'을 매개해서 나-'임'으로 되돌아올 때에만 인간 고유의 자기의식이 가능해 진다. 이런 가름과 되돌아옴으로부터 자기의식이 탄생한다. 이 자기의식은 그 자기의식의 주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불행하게 만든다.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18p, 밑줄 인용자)

젠치 고민(번민)의 가장 큰 근원은 "자기와 타자를 가르지 못함"에서 시작된다. 젠치는 '코가 긴 나'와 '코가 길지 않은 타자'를 구분하지 못했다. '나'를 인식하기보다 타자를 더 인식하였고, 코가 긴 '나'를 시종 부정하고 타자를 선망함으로 해서

나-임으로 되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의식(정체성)을 갖지 못했다. 나-되기 보다 남-되기를 위한 젠치의 노력은 코를 짧게 보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첫째로 내공이 생각한 것은 이 긴 코를 실제보다 짧게 보이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얼굴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볼을 괴어보기도……
그리고 내공은 늘 남의 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명이라도 자기와 같은 코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안심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공은 불경이나 일반 서적에서 자기와 똑같은 코를 가진 인물을 찾아 내어서 조금이나마 억지로 위안을 삼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

(「코」범우사, 18-19p, 밑줄 인용자)

この長い鼻を実際以上に短く見せる方法である。
顔の位置を換えるだけでは、安心が出来なくなって、頬杖をついたり……
それからまた内供は、絶えず人の鼻を気にしていた。
一人でも自分のような鼻のある人間を見つけて、安心がしたかったからである。
最後に、内供は、内典外典の中に、自分と同じような鼻のある人物を見出して、せめても幾分の心やりにしようとさえ思った事がある。

(『芥川竜之介全集 1 』,「鼻」ちくま文庫, 65-66p)

이처럼 젠치의 남-되기는 코가 긴 '나'를 인정하기 보다는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온전한 자기의식을 만들지 못하고 늘 타인을 의식하는 불완전한 '나'를 만들게 된다. 이 타자의식은 젠치를 소극적인 인물로 만든다. 코를 짧게 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젠치는 자신의 긴 코를 혼자만의 공간에서 고민하고 소극적 방법을 취해 작게 보이려 하고 제자승이 교토에 가서 코를 짧게 하는 방법을 알아왔을 때도 흔쾌히 나서서 방법을 취하기보다 제자승이 침이 마르게 자기를 설득하여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젠치의 소극성과 이중성을 본다.

젠치는 현실에서도 서적이나 불경 안에서 끊임없이 타자를 살폈는데 젠치가 타

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코에 머물러 끊임없이 객체화하고 그 객체화는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와 그의 번민을 지속시켰다.

젠치	사람들은 코가 길지 않구나! ⇄ 나는 코가 길구나!	타자

젠치→ 타자의 코 객체화 → 젠치의 코 객체화

주체는 자신이 객체화한 대상에 의해 결국 스스로를 객체화하게 되는 것[8]으로 '길지 않은 코'에 대한 욕망은 '길지 않은 코'를 가진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의해 자신은 '긴 코를 가진 자'로 객체화 된 것이다. 자신을 이루는 규정성들 하나하나는 타자들의 규정성을 함축[9]하기 때문에 젠치가 코가 길다면 타자는 길지 않음을, 젠치가 승려라면 타자는 속인(俗人)임을, 내공봉승이라면 일반 승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나는 코가 길다.
나를 제외한 타자는 코가 길지 않다.

젠치가 타자들의 규정성들과의 비교/대조에서 신체에 집착하는 자아의식은 행복하지 않다는 '불행한 의식'을 갖게 한다(이정우는 자아의식이 강한 의식을 불행한 의식이라 말하고 있다,『주체란 무엇인가』,산해, 23p). 젠치의 자기의식은 나=젠치=승려=내

8) 『주체란 무엇인가』, 산해, 17p
9) 같은책, 18p

공≠코가 긴 사람이 된다. ‘코가 긴’ 자기에 대한 부정은 젠치 자신에 대한 부정과 타자에 대한 부정이다. 자기를 제외한 타자들의 ‘길지 않은 코’를 인정하지 않음이다. 타자의 부정은 ‘코가 길다’는 ‘왜 나만 코가 긴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당하다’의 심리도 내포돼 있다. 젠치 역시 스스로 말하는 방관자의 이기주의를 답습한다. 자신 역시 타자를 자신과 같은 불행에 빠트리고 싶었던 것이다.

작가가 어떤 방법을 써도 짧아 보이지 않는 코로 인해 한숨을 쉬고 관음경(觀音經)[10]을 읽으러 가는 젠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젠치의 부덕(不德)이고 어리석음이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大慈大悲, 중생을 불쌍히 여겨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부처나 보살의 마음)에 의지하면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음경을 읽으면서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젠치는 知德을 겸비했는지 내공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젠치는 ‘코가 길다’, 나 이외의 타자는 ‘코가 길지 않다’는 외견(外見)에 관한 술어로 아름다움의 관점으로도 논할 수 있는데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인 게송(偈頌)부분에서 묘상(妙相) 이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다.

세존묘상구(世尊妙相具)　아금중문피(我今重問彼)
불자하인연(佛子何因緣)　명위관세음(名爲觀世音)

묘상을 갖추고 계신 부처님께 저는 거듭 여쭙니다. 존귀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을 왜 관음보살이라 부르시나이까?

— 관음보살은 결코 뛰어난 존재는 아니다. 그도 남과 같이 많은 고뇌를 갖는다. 그 고뇌로 인하여 바로 보고 배우며 사색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바로 그대 자신의 그 마음이 곧 관음보살이다.

(송원스님, 『알기 쉬운 관음경』, 창작시대, 69p)

---

10) 法華經 第八劵第二十五品の普門品の別称。観世音菩薩の功徳や妙力を説く。
『芥川竜之介全集 1 』,「鼻」, ちくま文庫, 65p
법화경 제8권제25품의 보문품의 다른 이름.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묘력을 이야기 함. 譯 옮긴이

묘상(妙相)은 '겉으로의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모양보다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존귀한 인간성이 언행이나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32상(三十二相)"의 묘상(妙相)을 다 갖춘 부처를 모시는 내공의 모순이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무-것도-아니라는 깨달음은 내공인 젠치에게 멀어만 보인다. 진정한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11]라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승려(僧侶)이기에 젠치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케노오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코를 달고 있는 젠치 내공을 위해서 내공이 속인(俗人)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코가 저래 가지고야 아무도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여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또 코가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것이라고 빈정거리는 자까지 있었다. 그러나 내공은 자기가 중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코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적어졌다고 생각지 않는다. 내공의 자존심은 대처(帶妻)와 같은 결과적인 사실로 좌우되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코」, 범우사, 18p)

池の尾の町の者は、こう云う鼻をしている禅智内供のために、内供の俗でない事を仕合せだと云った。あの鼻では誰も妻になる女があるま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中にはまた、あの鼻だから出家したのだろうと批評する者さえあった。しかし内供は、自分が僧であるために、幾分でもこの鼻に煩される事が少くなったと思っていない。内供の自尊心は、妻帯と云うような結果的な事実に左右されるためには、余りにデリケイトに出来ていたのである。

(「鼻」,ちくま文庫, 64 p)

위 예문에서 말하는 대처(帶妻)는 '살림을 차리고 아내와 자식을 거느린 승려'를 말하는데 젠치가 만약 대처(帶妻)이거나 그냥 속인(俗人)이라 하더라도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형성된 그의 자존심은 달라지지 않는다. 델리케이트(delicate)한 인간이 강해 질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소세키는 자기본위를 찾고부터 강해졌다(나는 이 언어를 손에 쥔 뒤부터 매우 강해졌습니다『나의 개인주의』책세상 54p)고 하였는

11)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50p

데 젠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내면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젠치를 나타내는 많은 규정성에서 자신이 '젠치라는 것'과 '코가 길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內供 젠치	俗人 젠치	帶妻 젠치
나는 젠치이다	나는 젠치이다	나는 젠치이다
나는 승려 內供 이다	?	나는 승려이다
X	?	나는 아내와 자식이 있다
· · ·	· · ·	· · ·
나는 코가 길다	나는 코가 길다	나는 코가 길다

帶妻일 경우는 코가 긴 知德을 쌓지 못한 승려이며 俗人의 경우는 단지 코가 긴 젠치일 뿐이다.

또한 술어적 주체로 구성되는 사회/세상이라는 곳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런 고통, 규정성들과의 비교/대조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를 규정하는 술어가 타자와 나를 구분하고 나누는 분절선들 이상의 **아무-것도-아니라는 것**[12]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12) 강조는 작가. 아무-것도-아님을 장자의 제물론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음.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3p
만물제동(万物齊同)- 일체(一體)이며, 그 무차별 평등의 상태를 천균(天均)이라 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생사(生死)도 하나이며 꿈과 현실의 구별도 없다. 이와 같은 망아(忘我)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야말

아무-것도-아니라는 것의 깨달음으로부터 젠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b. 젠치- 소세키

'길지 않은 코'에 대한 욕망은 길지 않은 코를 자신의 긴 코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발생한다. 길지 않은 코는 젠치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모방해야 할 대상이다. 자신은 길지 않은 코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등감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가 된다. 이 젠치의 열등감을 소세키가 영국유학에서 인식한 주체, 즉 자기본위(自己本位)를 통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소세키와 비교하며 찾아보고자 한다.

소세키의 『나의 개인주의』를 통해 본 소세키의 주체의 성립은 긴 방황의 끝을 알리고 공허함을 채워줄 긍정적인 깨달음으로 비춰졌다. 가쿠슈인(學習院)에 다니는 고급자녀들에 대해 권력과 금력의 남용에 대한 주의[13]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타인의 자유존중에 대한 그의 강연은 긴 고뇌의 사유 끝에 자신의 진리를 찾은 철학자의 강연 같았다.

하지만 소세키가 47세에 강연한 『나의 개인주의』는 33세의 영국유학 체험에서 느낀 그의 감정이 아닌 시간에 의해 순화되고 정리된 강연이었다. 소세키가 자기본위를 찾기까지, 윤리적 인간의 삶을 말하기까지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박유하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라는 시각으로 본 소세키의 주체는 열등감에서 시작된다. 그의 일기, 「노트」,「문학론」,「런던소식」, 교쿄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소세키가 그 당시 느낀 열등감, 서양에 대한 부러움, 근대화 되지 않은 자국에 대한 혐오 등이 드러난다. 소세키의 주체는 '나'에서가 아닌 '일본'에서 형성[14]되었다.

로 수양의 극치라고 하였다. 이는 곧 무위인(無位人)이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13) 나쓰세 소세키, 『나의 개인주의』, 책세상, 39-108p 내용 함축.

14) 박유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 24-96p의 내용 함축.

이는 「나의 개인주의」 강연만을 통해 소세키의 자기본위를 알게 되었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내셔널 아이덴티티, 즉 국가주의적 시선에서 소세키를 보았을 때는 소세키는 지나친 열등감과 자기혐오로 끊임없이 타자(서양)를 인식했던 소세키였음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소세키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일본'을 떠올리면서, 대상을 항상 '일본'과 비교하여 바라본다. 中略 파리 번화가의 모습을 보면서 '긴자 경치보다 50배'라고 비교하는 사고방식은, 소세키에게 새로운 대상이 항상 규모의 '비교'를 전제로 해서만 비로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中略 '50배'등의 수치로 계량화되는 한, 그 비교에는 필연적으로 우열의 판단이 동반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세키의 남달리 강했던 '뒤처짐'의 인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33p)

비교대상에 대한 '혐오'-인식대상에 거리를 두고 싶은 욕망-를 불러일으킬 터이다. 소세키가 빠져있던 자기혐오가 우선은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열등감은 소세키 자신의 근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같은 책, 36p)

소세키의 열등감에 대한 예는 이 외에도 교코에게 보낸 편지 속 '청결'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 잘 관리된 영국의 근대화된 '위생' 에 대한 '부러움', 문학미술의 발달과 그 문학미술로 인한 국민의 품성 감화 등에 대한 부러움이 런던 소식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나아가 소세키의 영국 혐오가 '결핍'된 가운데 늘 '뒤처져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의식해야 했던 데서 시작[15]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소세키의 열등감을 통해 「鼻」의 젠치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15) 같은책, 35p

소세키	타자		젠치	타자	
	서양			길지 않은 코를 가진 사람	
	열등감	O		열등감	O
	자기혐오	O		자기혐오	O
	비교의식	O		비교의식	O
	선망의 대상	O		선망의 대상	O
	모순발생	O		모순발생	O
	능동적	O		능동적	X
	주체성립	O		주체성립	X

소세키와 젠치의 타자에 대한 인식을 표로 나타내 보았다.

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로 주체가 나와 남을 가를 수 있는 의식수준을 전제 할 때 이 타자와의 비교에 의한 가름에서 온전히 자기로 돌아올 때 성숙한 자아가 성립할 테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타자에 의한 허위 주체가 성립되고 만다. 젠치와 달리 소세키는 自己本位라는 주체를 성립하지만 '나'가 아닌 '일본(국가)'에 의한 '자기의식'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성을 읽어본다.

소세키 주체의 나약함은 '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발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유하는 소세키의 정체성을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보았고 주체가 반드시 개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 '집단'으로서도 존재 한다는 이정우의 말처럼 소세키의 주체는 '우리'(일본)로서 시작되었다. 소세키의 '우리(국가)'를 위한 소세키의 자기본위는 소세키로 하여금 글(문학)을 쓰게 했고 그 글은 일본인의 의식을 깨우고 일본의 근대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숱한 '우리'들로 구성되지만, 또한 역으로 숱한 '우리들로 해체된다'[16]는 주체의 이율배반성은 소세키에게

서 ‘서양’을 통해 ‘일본’을 보고 ‘나’를 보게 하였다.

소세키는 서양을 선망하면서도 부정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흉내내기식의 근대화를 경계했던 두 사고의 갈등에서 자신(일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안감을 껴안는다.

“커다란 배를 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리고 배는 “태양”의 ‘뒤를 쫓아가’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한다.’ “서양으로 가는” 듯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이런 배에 있기보다 차라리 몸을 던져 죽어버릴까 생각했”던 화자는 결국 바다에 몸을 던진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라도 역시 타고 있는 편이 좋았을 걸 하고 비로소 깨달으며” “떨어져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43p)

소세키의 모순이 일본정신의 유지와 미개(未開)에 대한 불쾌감과의 갈등에서 드러났다면 젠치의 모순은 그렇게 선망하던 짧은 코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16)『주체』, 그린비, 26p

c. 젠치의 모순

- 짧아진 코

저 턱 아래까지 늘어졌던 코가 제자승의 도움으로 거짓말같이 줄어들자 젠치는 '아무도 웃을 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젠치는 긴 코가 주었던 불유쾌함에서 이제 해방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젠치는 코가 길었을 때보다 더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만약 젠치의 코가 완벽하게 타자의 코처럼 줄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턱 아래까지 늘어졌던 코는 윗입술 위까지 줄어들지만 타자들의 코처럼 적당하게 줄어들지는 못했다. 그 '어설픔'이 타자들로 하여금 젠치를 비웃게 하고 젠치에 대해 그저 '승려'라는 생각에서 '코가 긴 승려'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꼴이 된다. 결국 자신의 욕망만 들키고 내공으로서 不德함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이 어설픔에서 서양을 흉내내려고 하는 일본의 모습을 경계한 아쿠타카와와 소세키의 사고를 읽어본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타인본위로 뿌리 없는 개구리밥처럼 그 근처를 아무렇게나 방황하고 있었으니 모두 허사였다는 사실을 겨우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본위라는 것은 자신의 술을 타인에게 마시게 하여 이른바 남 흉내 내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中略～) 하물며 그 무렵에는 서양인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맹종해서 으스댔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가타카나(여기에서는 외래어를 상징함)를 늘어놓고 남에게 잘난 체하는 사람이 예외 없이 전부 이런 모양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 나의 개인주의 외』, 책세상, 51-52p)

今まではまったく他人本位で、根のない萍のように、そこいらをでたらめにただよっていたから、駄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ようやく気がついたのです。私のここに他人本位というのは、自分の酒を人に飲んでもらって、後からその品評を聴いて、それを理が非でもそうだとしてしまういわゆる人真似をさすのです。（~中略~）ましてやそのころは西洋人のいうことだといえば何でもかでも盲従して威張ったものです。だからむやみに片仮名を並べて人に吹聴して得意がった男が比々（ど

れもこれも）皆是なりといいた
いくらいごろごろしていました。

（『私の個人主義』，講談社学術文庫，133－134ｐ）

-다시 길어진 코

다시 코가 길어진 것의 의미는 젠치는 젠치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는「鼻」의 젠치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젠치가 원했던 것은 타자들과 같은 코였을까. 젠치의 줄어든 코가 의미하는 것은 타자들의 사고이다. 젠치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타자들의 생각을 알고자 했다. 나의 코가 줄었는데 긴 코였을 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줄어든 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문이다. 정작 타자들은 자신이 고민한 만큼 자신의 긴 코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코가 줄어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아무도 웃을 자는 없을 것이다"[17] (もう誰も**哂う**ものはないにちがいない。) 라는 문장은 소설에서 두 번 등장 하는데 코가 줄어들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코가 길어지고 난 후에도 그는 이와 같이 말한다. '와라우' (哂う, わらう) 는 '조롱하여 웃다, 비웃다'의 의미가 강하다. 이 '와라우'에서 그의 열등감을 읽어 보고 젠치의 모순을 발견한다. 코가 긴 상태에서도 코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타자들이 자신을 비웃을 거라는 생각은 젠치 내면의 혼동을 말해주고 있다. 젠치를 비웃는 것은 타자인지 열등감에서 온 자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젠치는 줄어든 코를 통해 속마음을 타자들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 속마음을 안 타자들은 젠치를 지덕을 겸비한 내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속인에 가까운 인간으로

17) 「鼻」, 범우사, 23p, 25p

보며 웃는 것이다. 소설은 방관자의 이기주의로 타자들을 칭하지만 젠치가 알게 된 것은 그의 고통을 다시 고통에 빠트리고 싶은 그런 타자들의 마음이 아닌 사미(沙彌)시절부터의 '긴 코로 인한 자신의 고통'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타자들의 인식을 말하고 있다. 방관자적 이기주의가 다시 길어진 그의 코를 밝고 상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간의 방관자적 태도나 무관심은 그에게 소외감과 고립감을 주지만 한편으로 이 깨달음은 이전의 젠치보다 젠치를 더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사실상 타자의 고민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젠치의 구원을 이 방관주의(傍觀主義)라는 말의 모순성에서 찾아본다.

나는 이 자기본위라는 언어를 손에 쥔 뒤부터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는 기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망연자실하고 있던 나에게 여기에 서서 이 길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인도해준 것은 실로 이 자기본위 네 자입니다. (中略) 그때 나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경쾌한 마음으로 음울한 런던을 바라보았습니다.

(『 나의 개인주의 외』, 책세상, 54p)

私はこの自己本位という言葉を自分の手に握ってからたいへん強くなりました。彼ら何者ぞやと気概が出ました。今まで茫然と自失していた私に、ここに立って、この道からこう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図をしてくれたものは実にこの自我本位の四字なのであります。（～中略～）その時私の不安はまったく消えました。私は軽快な心をもって陰鬱なロンドンを眺めたのです。

(『私の個人主義』, 講談社学術文庫, 136ｐ)

소세키는 자기본위로부터 자신의 불안을 이겨나갔다. 젠치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 인해 대상화된 객체가 아닌 주체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그대 자신을 알라"에서 '나'=주체의 등식이 성립된다.

또 소크라테스는 "그대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의 신탁을 늘 음미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오용(誤用)하죠.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거나 잘난 척하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엉뚱한 해석(?)입니다. “그대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라”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그대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는 단순한 돌멩이도 나무도 개도 아니다. 그대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다. 즉 이성적 인식을 할 수 있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심미적 기쁨에 젖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정우, 『개념뿌리들 02』, 산해, 25p)

젠치가 부처의 묘상(妙相)과 소크라테스의 “그대 자신을 알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기대해 본다.

2.「一塊の土」

a. 「一塊の土」의 오타미(お民)의 주체

「一塊の土」의 공간적 배경은 차잎따기나 풀베기, 누에치기 등의 노동에 관한 일을 통해 시골임을 엿볼 수 있다. 시대는 오타미를 며느리의 모범, 열녀의 귀감이라는 것에서 근대화 이전의 봉건적사고가 잔존하는 시대로 추론해본다. 논고를 통해 봉건사회와 시골과 여성에 주목해 본다.

오타미(お民)의 주체 규정은 나=오타미=과부=엄마=며느리 등으로 볼 수 있다. 오타미의 술어적 주체는

오타미는 과부이다.
오타미는 생활력이 강하다.
오타미는 타관 사람이다.
오타미는 열녀이다.

오타미의 주체는 개체로서보다 '우리'로서의 주체, 즉 집단적 주체들에서 잘 드러난다. 소설에서 집단적 주체는 시대, 마을사람들에 의해 비춰진 열녀(烈女)라는 규정성에서 드러난다. 열녀라는 규정성에서 오타미는 여성주체를 내포한다.

주체는 일정한 규정성들을 통해 스스로를 정립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규정성들에 대해 끝없이 번민한다. 주체는 규정성들의 그물에 갇힌 새이지만, 그 그물을 찢고서 무한한 규정성들의 하늘을 날아오르려고 몸부림을 친다.

(『주체』, 산해, 14p)

오타미는 열녀라는 그물에 갇힌 새이지만 그 열녀라는 그물을 통해 자신을 찾으려 한다.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타자(사회, 마을사람)의 인정(認定)이 그녀를 개가(改嫁)하지 않은 미망인(未亡人)의 삶을 살게 한다. 소세키 역시 지식인(知識人)의 그물이,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 그를 글을 쓰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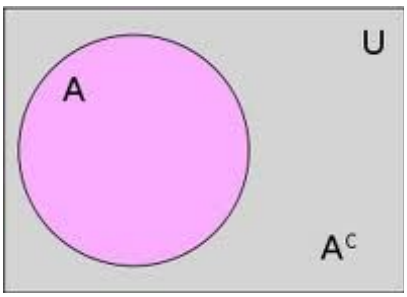
그러나 종종 유지하고 싶은 그물코는 찢어지고, 찢고 싶은 그물코는 견고하게 버틴다. 주체란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규정성들의 하늘에서 끝없이 수선되는 직조물이다. 현재 한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이름들, 즉 규정성들의 하늘에서 한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그 주체의 정체성이다.

(같은책, 14p, 밑줄 인용자)

오타미는 烈女라는 그물코를 자의반 타의반 받아들인다. 이 열녀라는 규정성을 통해서 여자라고 하는 그녀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한 아이의 엄마, 며느리로서의 그물코보다 그녀를 나타내는 건 烈女라는 규정성이다.

그러나 주체는 이 이름-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집합의 공간에 늘 부딪치면서 스스로를 끝없이 수선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주체는 공감적 구상체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겪는 유기체이다. 주체는 정확히 말해 “나는 OO이다”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는 OO게 되어 간다”를 통해서 성립한다. 즉, 주체란 ‘OO되기’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책, 14p, 밑줄 인용자)



[그림 ‘여집합’ 인터넷 자료 참조]

U에는 많은 규정성들 烈女, 여자, 어머니, 며느리……등이 존재함으로 보고 오타미가 선택한 A=烈女를 제외한 나머지 A^c 공간은 여자, 어머니, 며느리…… 등으로 오타미는 그 A^c 공간에서 부딪친다. A^c 공간에 시어머니 오스미(お住)가 있고 오타미의 며느리라는 규정성의 부정이 시어머니 오스미와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오타미의 주체는 烈女라는 규정성을 선택하고 자의 반 타의 반 烈女화 되어 가는 것이다. 그녀의 선택은 '좋은 며느리 되기'가 아닌 '열녀 되기'이었다.

오타미의 '타의 반'은 오타미가 살았던 시대성에서 찾아본다.

'시간이라는 선험적 지평이 주체를 역설적으로 조건짓는'[18]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선택 불가능한 선험적인 것으로 오타미의 烈女라는 규정성이 인정받는 시대, 시간 속에서 선택은 수동성을 띨 수밖에 없다.

오타미는 이제 더 '일중독'에 빠진 젊은 과부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마을 젊은이 등의 '젊은 아줌마'도 더욱 아니었다. 그 대신 며느리의 모범이 되었다. 현대판 열녀의 귀감이었다. " 물 건너의 오타미를 본 받아라"라는 말이 잔소리와 함께 모두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흙 한 덩어리」, 문예출판사, 238p)

며느리의 모범, 열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간에서 온다. 주체는 시간의 지평위에서 '시간의 종합'을 통해서만 주체로 성립한다.[19] 이 주체는 '시간의 종합'에 있어서 두 가지 **수동적 종합**을 거치는데 그 두 가지는 '생존이라는 조건/틀'과 '사회적 맥락'[20]에서의 수동적 종합을 말하고 있다. 오타미의 수동성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고 있다. 미망인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의 삶과 봉건사회가 이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수동성'은 소극성이나 무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합의 주체가 진정 주체일 수 없는 상황'[21]을 가리킨다.

---

18) 『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31p
19) 같은 책 38p
20) 같은 책 39p
21) 같은 책 39p

「一塊の土」에 그려진 오타미(お民)라는 여성은 강단 있는 여성으로 비춰진다. 남자 못지않은 노동을 하고 우선은 노동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되지 않는다. 노동을 통해서 본 그녀는 주체적인 여성으로까지 비춰진다. 오타미를 살게 하는 건 노동이고 오타미를 죽게 한 것 역시 노동이다. 그녀가 노동에 그토록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통해 그녀의 주체를 알아보자.

먼저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통해 오타미를 이해해 본다. 봉건시대의 교육 속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사고이다.

메이지 시대에는 천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인 가족주의국가관이 공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은 시대였다. 당시의 공교육에서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하는 모태, 모성으로서 국가인력의 재생산자 혹은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보조하는 존재처럼 규정되어 있었다. 그 사실은 일본의 문명개화기의 고등여자학교성립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메이로쿠샤의 계몽사상가의 한사람인 나카무라마사나오(中村正直)는 여자교육에 기품있는 어머니를 양성할 필요를 말하고 「남녀교육은 동등해야한다」라고 말하고 초등이상의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金孝順,『芥川龍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논문 참조, 譯·밑줄 인용자)

明治時代には天皇制を頂点とする家父長的な家族主義国家観が公教育という制度を通じて確固とした信念となった時代であった。当時の公教育では、家庭内での女性の役割は子を生んで、養育する母胎・母性として国家人力の再生産者、或いは男性の社会的役割を補助する存在となるように規定されていた。その事実は日本の文明開化期の高等女学校成立の過程を見れば分かる。まず、明六社の啓蒙思想家の一人中村正は、女子教育に見識を持つ母親を養成する必要を説き、「男女娥教養ハ同等ナルベシ」(1)と述べて、初等以上の女子教育の必要性を示唆した。

(金孝順 ,『芥川龍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 논문 참조, 밑줄 인용자)

공교육에서 실시된 여성의 교육은 국가인력의 재생산자 혹은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보조하는 존재로 교육되었다. '국가인력의 재생산자'란 국가를 위한 삶,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보조하는 존재'란 남성을 위한 삶이여야 했다. 여성에게 '나'라는

하나의 개체로서의 '자기의식'은 길러질 수 없었다.

1887년 당시의 문부대신 모리아리노리(森有礼)는 '국가부강의 근본은 교육에 있고 교육의 근본은 여자교육에 있다'라고 했지만, 그 교육의 목표는 '한 사람의 좋은 부인, 한 사람의 현모, 한 집안을 잘 이끌어 갈 자제를 훈도할만한 기질재능' 을 양성함에 있다고 말했다.

(金孝順,『芥川龍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논문 참고, 譯·밑줄 인용자)

当時の文部大臣森有礼は「国家富強の根本は教育に在り、教育の根本は女子教育にあり」といったが、その教育の目標は「人の良妻となり人の賢母となり一家を整理し子弟を薫陶するに足る気質才能」養成にあると言った。

(金孝順 ,『芥川龍之介文化觀』, 筑波大學,[2005]논문 참고, 밑줄 인용자)

국가부강을 위한 여성의 교육에 있어서도 '나'보다는 남편과 자식에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늘 남성들에 의해 객체화 되고 남성들을 위한 객체화였다. 일본근대 정신의 시작을 알리는 소세키에게서 배제된 여성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교육의 영향일 것이다.

소세키의 개인주의는 (문명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따라서 '인격'을 갖출 수도 없었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나 '여성'이나 '타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시 상세히 말하겠지만, 소세키가 말하는 타자에는, 여성이나 타민족이나 하층계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세키의 개인주의란, '인격수양을 쌓은' 남성공동체 사회 내에서만 유효한 개인주의였다.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79p, 밑줄 인용자)

오타미가 개가(改嫁)하지 않고 선택한 미망인(未亡人)으로서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아들 '히로지(広次)를 위해서'였다. 기존의 유산(遺産)을 온전히 히로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다. 그녀의 삶의 방향이 '나'가 아닌 아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오타미가 시댁을 떠나지 않는 데에는 히로지만이 아닌 다른 이유들도 설명된다.

그녀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린 유전의 힘도 있는 듯하였다. 오타미는 불모의 산촌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온 소위 '타관 사람'의 딸이었다.

(「흙 한덩어리」, 문예출판사, 231p, 밑줄 인용자)

しかし又一つには彼女の心に深い根ざしを下ろしてゐた遺伝の力もあるらしかつた。お民は不毛の山国からこの界隈かいわいへ移住して来た所謂いはゆる「渡りもの」の娘だつた。

(「一塊の土」, ちくま文庫, 239p, 밑줄 인용자)

이 문장에서 아쿠타가와를 엿보게 되는데 '유전(遺傳)인 힘' 은 어머니 후쿠의 광기狂氣가 자신에게 유전될 거란 두려움의 표출로 본다. 젠치의 델리케이트(delicate)함 역시 이 유전의 힘으로 읽어본다. '타관사람'에서는 어머니의 광기로 인해 외삼촌 부부에게 입양되었던 자신의 경험이 이입된 것으로 추론해 본다. 유전의 힘과 타관사람은 늘 객체화 될 수밖에 없었던 작가 자신의 투영이라고 보고 오타미의 타자에 대한 경계와 새로운 곳에 대한 잠재된 공포심을 자연스레 읽어본다.

b. 노동

오타미의 쉬지 않는 노동[22]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를 일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정우는 서구 주체철학의 사유로 의지, 노동, 역사, 자유, 시간, 진화, 의미구성 등을 논하였다. 그는 진정한 노동은 인간이 몸을 써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도 변화해 나가는 과정[23]이라고 말하였다. 오타미의 노동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유'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칸트 이후 서양의 모든 철학은 한마디로 자유의 철학이에요. 노동이란 인간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노동은 일종의 'Wirkung'인데, 이것은 곧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죠), 바로 노동을 통해 인간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역사인거죠.

(『주름, 갈래, 울림(라이프니츠와 철학)』, 거름, 285p)

오타미의 자유는 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남편 닌타로의 죽음과 동시에 주어졌다. 그녀의 주어진 자유는 노동으로 표출되었고 그 노동은 사회적 인정(認定)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사회적 인정은 개가(改嫁)하지 않는 몸으로 힘든 노동을 할 때 주어졌다. 그녀는 주어진 자유를 노동으로 표현했지만 그 노동이 사회에 의해 烈女로 규정됨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에 갇히게 된다.

오타미는 남자 손도 빌리지 않고, 감자를 심거나 보리를 베며 이전보다 더 일에 열심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암소를 키우고, 비 오는 날에도 풀을 베러 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u>격한 노동</u>의 모습은 이제 와서 <u>타인을 집안에 들이는 것</u>에 대한, 그녀 자신의 강한 항변이었다.

(「흙 한덩어리」, 문예출판사, 230p, 밑줄 인용자)

---

22) 茶摘み、芋を植えたり麦を刈りったり、夏には牝牛を飼い、 雨の日でも草刈に出かけたり、お墓の穴堀役など。(차잎따기, 감자 심기, 보리베기, 소키우기, 풀베기, 무덤파는 일등)

23) 『주름, 갈래, 울림(라이프니츠와 철학)』, 거름, 284p

타인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경계심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작가자신의 투영이라면 광기가 유전 될 거라는 '공포'와 외가에서 자라야만 했던 그의 '소외감'을 소세키의 근대성에서 찾아본다.

소세키는 분명 '침범'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中略그러한 감성은 소세키뿐 아니라 현대에도 이어지는 타국 위협론의 근저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선 자기와 타자를 다른 것으로 규정하려는 역학이다. 그 때문에 "유린"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항상 피해자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거기에서는 들어오는 쪽 주체의 강제· 억압성이나 의도성이 강조되고 받아들이는 쪽의 자발성이나 주체성은 희박해지고 은폐된다.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41p, 밑줄 인용자)

오타미는 오스미가 들이고자 하는 '데릴사위'에서 침범에 대한 공포와 잃게 될 자유를 읽었는지 모른다. 여기에서 침범은 자신과 히로지 사이의 침범(재산을 반으로 나눠야만 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본다. 그녀가 끝까지 미망인의 삶을 추구한 것은 전통이라는 범주로 억압하려는 사회와 잃고 싶지 않은 자유에 대한 항변으로 본다.

수동성과 노동으로 살펴본 오타미의 주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시된 한 여성을 읽어낼 수 있다. 오타미의 죽음은 한 여성의 허무한 숙명과 고독을 나타낸다.

3. 「羅生門」

a. 「羅生門」의 하인(下人)의 주체

「羅生門」의 하인의 신분은 하인(下人)이다. 라쇼몽의 하인의 이름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인의 '나'는 나=O=하인=도둑?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술어적 주체로 나타내 보면

나는 하인이다.
하인은 하인이다.
하인은 해고되었다.
하인은 갈 곳이 없다 .
하인은 도둑이 되려한다?

등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나'를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고유명사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라쇼몽의 하인의 주체를 살펴보자.

주체는 살아가는 한 끝없이 겪음('파토스')에 처한다. '처處-함'은 어딘가에 놓임이고, 어떤 상황의 닥쳐-옴이다. 사물들에 대한 지각, 타인들과의 만남, 특정한 사건들과의 부딪침, 어떤 일에서의 성공과 실패, 더 넓게 말해 특정한 사회와 시대에 태어남,(근본적으로 볼 때) 인간으로서 태어남,…… 이 모두가 겪음이고, 처-함이고, 닥쳐-옴이다. 시간과 장소, 타자들과 사건들이라는 근본 구조 ── 생성하는 구조 ── 에서 겪어-감이 살아-감이다.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37p)

하인은 해고된 상황, 굶어 죽을 상황에 처에 있다. 이 처-함, 무엇보다도 '당분간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생계에 대한 고민이 그의 생각을 지배한다. 수단을 가리다간 굶어 죽게 되고 가리지 않는다면 하인은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고에 이른다. 이 처-함에서 하인의 주체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후 만나게 되는 타자와 사건들에 의해 하인의 주체는 변해 간다. 오타미가 봉건시대라는 선험적 시간 위에서 烈女라는 주체를 갖게 되었듯이 하인 역시 헤이안 시대(794-1192)라는 시간과 교토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종합에 의해 주체화 된다. 봉건사회라는 틀이 오타미와 하인에게서 '주체의 수동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주체의 시대성을 읽어본다. 오타미와 하인을 비교해보면 신분에 의한 수동성의 요인이 같음을 알 수 있다.

b. 주체의 수동성

오타미	타자		하인	타자	
	사회, 마을 주민			사회, 노파	
	시대	봉건시대		시대	헤이안시대 (794-1192)
	장소	시골		장소	교토(京都)
	신분	여성 (未亡人)		신분	하인(下人)
	사회적 인식	국가나 사회에 의한 객체화 (賢母良妻)		사회적 인식	주종관계
	수동성의 요인	신분(女性)		수동성의 요인	신분(下人)

수동성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체가 진정 주체일 수 없는 상황', 자신의 신분, 사회적 의식에 의해 어찌할 수 없음 등을 내포한다.

당장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귀족 중심이었던 헤이안 시대에 하인이라는 신분이 갖는 부조리함을 통해 하인의 주체를 읽어 볼 수 있다.

주체란 개체적이든 집단적이든 일정한 개별성에서 출발한다. 개별성은 동물에게서 두드러지게 성립하며 따라서 주체화란 동물성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주체화란 그 안에 이미 생존경쟁과 양육강식의 성격을 품고 있다.

(『주체』, 산해, 26p)

이정우는 인간이 주체화 되어갈 때 핵심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인식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식을 순수한 것도 고상한 것도 아니며 원초적인 맥락에서 생물학적인 것이며 생존경쟁의 한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인식하는 자가 주체가 되고 인식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객체가 되며, 때문에 인식이란 "먹느냐 먹히느냐"라는 생물학적 현실의 싸움으로 보았다. 인식이란 주체, 의식, 언어, 수학, 현미경, 추론…… 등의 문제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24]로 보고 있다.

생명의 문제에 관한 이론은 니체에 의해 날카롭게 지적되고 베르그송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19세에 보들레르, 스트린드베리, 아나톨 프랑스, 베르그송, 오이켄 등을 애독[25] 했는데 이들의 영향이 작품에 다수 반영된 듯하다.

생명의 문제, 즉 생존경쟁은, "먹히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하인과 노파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죽은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아 가발을 만들어 팔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거라는 사고는 하인에게 노파의 옷을 빼앗지 않으면 자신이 굶어 죽는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고 그 인식이 하인에 의해 노파가 먹히도록 하였지

24)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58-60p 내용 함축
25) 김난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연보' 참조, 297p

만 하인에게도 또 다른 인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존에 관한 인식은 하인과 같이 낮은 신분의 주체화에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이정우는 생존경쟁과 양육강식의 성격을 가진 개체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주체화 되고 약한 존재일수록 더 객체화 된다[26]. 또 주체화란 타자들을 더 자신아래 복속시킴으로써 성립하며 전통사회에서는 보다 높은 신분에 속할수록 보다 주체적 삶을 살아가고 낮은 신분일수록 객체화 된다고 보았다.

주체적 삶을 살 수 없었던 하인은 주종관계에서는 주인에 의해 객체화 되며 어느 날 해고 되어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한다. 늘 객체화 됐던 하인은 덩그러니 세상에 놓인 자신을 보게 되지만 망설일 뿐이다. 늘 객체화됐던 자신을 주체화로 돌린 건 다름 아닌 생존에 대한 인식이다. 그 인식은 노파로 인해서 깨어나고 힘(무력)에서 우위였던 하인은 노파를 누르고 우위에 선다. 이와 같은 주체화의 위험은 또 다른 양육강식을 낳는다는데 있을 것이다.

26)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6p

B. 도덕의 관점

1.「一塊の土」

a.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의 도덕

소세키는 1911(메이지44)년 오사카에서「문예와 도덕(文芸と道徳)」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인간은 도덕과 윤리세계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음을 말하고 도덕의 흐름에 따른 문예 사조를 이야기하였다. 소세키가 말하는 옛날의 도덕은 유신 전의 도덕, 도쿠가와 시대의 도덕을 가리킨다. 그 당시 옛날도덕은 완전한 이상적인 유형(충신, 효자, 혹은 정조 굳은 여인烈女)을 만들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 모범대로 실행가능하다고 보는 교육방식, 덕의(德義)의 정립방식[27]이었다.

아쿠타가와 역시 내일의 도덕「明日の道徳」의 강연에서 전통도덕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는 내일(明日)을 오늘 다음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대(次の時代)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내일의 도덕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의 도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어제의 도덕은 소세키가 말한 전통도덕, 메이지 전의 도덕, 봉건주의의 도덕을 의미한다. 그 역시 전통도덕에 부합한 이상적 인물로 충신, 효자, 열녀를 들고 있다. 소세키와 아쿠타가와의 전통도덕에 관한 강연내용을 토대로「一塊の土」를 살펴보고자 한다.

봉건주의 도덕은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심히 실제를 벗어난 혹은 심히 이상적으로 형성된 실천하기 곤란한 도덕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충신, 효자, 열녀와 같이 이상적 인물을 하나의 표준으로 세우고 그 전형적 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합니다만 좀처럼 도덕적 표준에서 보면 완전한 행위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明日の道徳」,ちくま文庫, 540-541ｐ, 譯 인용자)

---

27) 나쓰메소세키,「문예와 도덕」, 책세상, 141p

封建主義の道徳は、今日の目から見ますと、甚だ実際を離れた、あるいは甚だ理想的に出来上った、実践上困難な道徳であります。と申しますのは、忠臣孝子烈女と云うが如き、理想的の人物を一つ目安に立てて、その典型的人物に、己れを合わせしめるに努力するのでありますが、なかなかそう云う道徳的標準から見て、完全な行為は出来難いのであります。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40－541 p)

이상적으로 형성된 실천하기 곤란한 전통도덕에 오타미는 규정되어지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오타미와 오스미를 통해 전통도덕의 모순을 담아내었다. 오타미에게서는 양립할 수 없는 도덕의 이상향(열녀, 효부)를 그렸고 오타미에 대한 부정(否定)과 인정(認定)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오스미를 통해 여성의 나약함을 담았다.

아쿠타가와는 전통도덕이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이 성립하고 유지된 이유를 묻고 있다. 또한 전통도덕의 강제성과 무자비함을 엿보게 한다. 충신, 효자, 열녀라는 전통도덕은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수치(恥じ)[28]라는 죄 값을 치러야만 했으며 나쓰메 소세키는 강요당한 할복의 예[29]를 들었다. 忠이라는 도덕의 강요는 루스 베네딕트가 쓴 <47 로닌 이야기>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야기는 의리와 충을 담고 이 의리와 충은 자신의 영주와 쇼군의 관계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되어진다. 의리에 대한 행위는 충에 반하고, 자신의 영주에 대한 충은 쇼군의 충에 반한다. 결국 할복 할 수밖에 없는 자칫 모순투성이인 이 이야기만큼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

28) 『국화와 칼』의 저자 루스 베네딕트는 '수치의 문화'에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물론 신에 대해서도 고백의 관습이 없다. 참다운 죄의 문화가 내면적 죄의 자각에 의거해 선행을 하는데 비해 참다운 수치의 문화는 외면적 강제력에 의거해 선행을 한다. 수치는 타인의 비평에 대한 반응이다. 어느 경우에나 수치는 강제력이 된다. -中略- 그런데 명예가 자신이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 자아에 걸맞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비행을 아무도 모른다 해도 죄의식에 고민한다고 함.
『 국화와 칼』, 296p, 밑줄 인용자

29) 강요당한 할복으로 사회체제가 너무 악랄하고 가혹해, 살아서 다른 사람과 얼굴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목숨을 버렸을 거라고 소세키는 말한다.
김정훈,「나의 개인주의」, 책세상, 142p

이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져 문자로 인쇄되고 현대의 통속영화로 되풀이해서 제작된다. 47 로닌의 묘소는 예부터 지금까지 명소가 되었고, 몇천 만 명이 참배했다. 참배객들이 두고 간 명함으로 무덤 주위가 하얗게 뒤덮이는 일도 자주 있다.

(『 국화와 칼』, 266~267p)

47명의 로닌(浪人)은 의리(義理)를 위해 명성, 아버지, 아내, 누이동생, 정의 등을 희생하고 최후에 그들은 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충(忠)에 바친다. 이처럼 가혹하고 모순적인 전통도덕의 성립과 유지(지속)를 아쿠타가와는 '비판적 정신의 결핍(批判的精神の欠乏)'에서 찾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봉건사회가 효자, 충신, 열녀를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神)을 대신하여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며, 유자(儒者)가 주장하는 요순(堯舜)과 같은 존재했을지도 모를 인물에 완전무결한 덕(德)을 지니게 하여 후세의 사람들로부터 그것(완전무결한 德)[30]을 뒤따르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30) 『芥川龍之介全集8』,「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42 p

b. 전통도덕의 모순

「一塊の土」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열녀(烈女)라는 전통도덕과 잠재된 효부(孝婦)로서의 전통도덕은 양립할 수 없는 도덕의 모순을 담고 있다. 타자(마을사람)는 열녀(烈女)로 비춰지는 오타미가 효부(孝婦)인지 아닌지는 궁금해 하지 않는다. 이 전통도덕의 모순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시어머니 오스미 뿐이다. 오스미는 오타미의 열녀로서의 모습과 효부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지켜보는 존재이다. 바깥일만 한 오타미로 인해 오스미의 집안일은 늘어만 간다. 여기에서 갈등은 야기되고 오타미에 대한 오스미의 의식의 변화는 뚜렷이 드러난다.

고마움
↓
감탄
↓
경의 → 두려움
↓
미움
↓
측은함

처음에 느낀 고마움과 감탄은 오타미의 정조(貞操)와 강인한 생활력에 대한 감정으로 홀로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는 열녀의 도덕적 규범에서 비롯됐다. 경의에서 두려움과 미움으로 이어지는 감정은 시어머니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불효(不孝)의 도덕적 규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세키는 이

러한 전통도덕의 모순이 의심스러운 결점(いかがわしい欠点)[31]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의심스러운 결점은 충과 효와 정조가 있는 동시에 불충과 불효와 부정이 있음을 간과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쿠타가와는「明日の道徳」에서 국가가 원하는 인간상 '忠'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욕이 되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불효(不孝)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도덕은 오늘날에 와서 보면 봉건시대의 도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때문에 작게나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현저한 예는 최근 다른 서적에도 썼습니다만, 나는 소학교시대에 니노미야킨지로(二宮金次郎)[32]를 배웠습니다. 킨지로의 부친,—— 부친이라고 말하면 실례입니다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가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킨지로는, 밭을 일구거나 짚신을 삼고, 그 사이 책을 읽고,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킨지로의 전철을 밟아 많은 고생이 있어도 책만 읽으면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생각해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순조롭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도덕입니다. 오늘날에는 불행하게도 소학교의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만 킨지로를 찬미하기 전에 밭을 일구거나 짚신을 삼아야만 하는 가정에 킨지로를 빠트린 킨지로의 아버지 및 어머니는 분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省略

(「明日の道徳」,ちくま文庫, 540ー541ｐ, 譯 인용자)

私の子供時代の道徳は今から見れば、封建時代の道徳は沢山に残って居りまして、そのそのために尠からざる迷惑をしたのであります。そのもっとも著しい例は、最近ほかの物にも書きましたが、私は小学校の時代に、二宮金次郎を教えられました。金次郎のおやじ、——おやじと言っては失礼でありますが、お父さんはいかなる人か分からない。とにかく貧乏であった事は事実であります。それがために金次郎は、田を植えたり草鞋を作ったりして、その間に本をよんでああ云う偉い人になったと教えられました。私共も金次郎の轍を履んで、いかなる難儀辛苦しても、本さえ読めば偉くなる事も思いましたが、しかしあれは今日考えると、親のためには甚だ都合が好くて、子供のためには都合が悪い道徳であります。今日は不幸にして小学校の教科書を失って、読む機会がありませぬが、金次郎を讃美する前に、田を植えたり草鞋を作ったりしなければならぬ家庭に、金次郎を陥れた、金次郎の父並に母に憤慨を感ずるだろうと思います。 -省略

---

31) 夏目漱石 ,『私の個人主義 』,文芸は道徳, 講談社学習文庫, 99ｐ
'いかがわしい'의 사전적 의미는
1. 의심스럽다. 수상쩍다. 믿음직하지 않다. 정체를 알 수 없다
2. 저속하다. 풍기상 좋지 않다. 음란하다.

32) 二宮尊德 (1787~1856) 。에도말기의 독농가(篤農家)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40−541 p)

위는 주경야독(晝耕夜讀)하여 독농가(篤農家, 모범농부)가 된 손토쿠의 이야기로 손토쿠에 있어서는 명예가 되는 이야기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간과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국가에 유익한 인간, 즉 '忠'이라는 도덕을 가르침에 있어 부모의 입장은 무시되는 국가의 이기(利己)와 불효(不孝)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아쿠타가와는 「侏儒の言葉」에서도 '니노미야 손토쿠'라는 짧은 경구를 쓰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입지전(立志傳)은 손토쿠에게 명예를 준 대신에 당연히 그 부모에게는 불명예를 준 이야기다. 그들은 손토구의 교육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준 것은 방해밖에 없었을 정도다. -中略- 우리 소년은 손토쿠처럼 의연한 뜻을 품어야 한다. 나는 그들의 이기주의에 경탄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

(이유정『난쟁이가 하는말』, 시학사, 41-42p, 밑줄 인용자)

けれどもこの立志譚は尊徳に名誉を与える代りに、当然尊徳の両親には不名誉を与える物語である。彼等は尊徳の教育に寸毫の便宜をも与えなかった。いや、寧ろ与えたものは障碍ばかりだった位である。-中略- 我我少年は尊徳のように勇猛の志を養わなければならぬ。わたしは彼等の利己主義に驚嘆に近いものを感じている。

(「侏儒の言葉」, ちくま文庫, 182-183p, 밑줄 인용자)

아쿠타가와는 전통도덕의 강요를 이기주의(利己主義)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기성을 아쿠타가와는 사회에 투영한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의 노동의 고됨을 덜기위해 오타미에게 끊임없이 데릴사위를 권하는 오스미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그린다. 그러나 니노미야 손토쿠의 일화와 같이 입장에 따라서 도덕의 성격은 달라 질 수 있다. 오타미를 열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타자(사회, 마을주민)는 시어머니인 오스미의

심한 가사일과 며느리에게 받는 모욕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소설은 지극히 사소한 오타미의 불효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넣음으로써 전통도덕이 갖는 모순과 이기성을 말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그녀 자신의 속옷도 거의 빤 적이 없었다.
어느 때는 욕통의 불을 때지 않아서, 어느 때는 왕겨 말리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소가 풀린 것도 몰라서, 그때마다 오스미는 성질이 드센 오타미에게 비꼬는 말이나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오스미는 마침내 사소한 것 때문에 오타미와 심한 말싸움을 벌였다. 사소하다는 것은 오타미가 먹을 감자를 오스미가 먹었다든가 하는 일이었다.

(김영식,「흙 한 덩어리」, 문예출판사, 233p, 237p, 241p)

この頃ではもう彼女自身の腰巻さえ滅多に洗ったことはなかった。
或時は風呂を焚かなかつた為に、或時は籾を干し忘れた為に、或時は牛の放れた為に、お住はいつも気の強いお民に当てこすりや小言を云われ勝ちだった。が、彼女は言葉も返さず、ぢっと苦しみに堪えつづけた。
こう云ふ小事件のあった翌晩、お住はとうとうちょっとしたことから、お民とも烈しいいさかひをした。ちょっとしたこととはお民の食う諸をお住の食ったとか云うことだけだった。

(「一塊の土」, ちくま文庫, 241p, 245p, 249p)

사회는 오스미의 고통을 묵과하고 한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열녀를 강요했다. 히로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할머니, 우리 엄마 훌륭한 사람이야?”(おばあさん。おらのお母さんはうんと人かい？)라는 질문을 통해 학교 도덕교육에서까지 인정받는 오타미의 위치에 오스미가 놀라는 이유도 사회의 이기성 때문이다. 전통도덕의 모순에 질린 오스미의 발작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스미는 우선 당황하였다. 손자마저 학교 선생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배우고 있었다

니……, 실제로 오스미에게는 이만큼 뜻밖의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순간의 당황 후에 발작적으로 분노에 휩싸인 오스미는 생판 남처럼 오타미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럼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야. 네 엄마라는 사람은 말이야. 밖에서만 일하는 주제에 남 앞에서는 훌륭히 보이지만 마음은 나쁜 사람이야. 할미만 부려 먹고 성질은 고약해서……,”

(김영식, 「흙 한 덩어리」, 문예출판사, 239-240p)

お住はまず狼狽らうばいした。孫さえ学校の先生などにそんな大嘘を教えられている、――実際お住にはこのくらい意外な出来事はないのだった。が、一瞬の狼狽の後、発作的の怒に襲われたお住は別人のようにお民を罵しり出した。
「おお、嘘だとも、嘘の皮だわ。お前のお母さんと云う人はな、外でばっか働くせえに、人前は偉く好いけんどな、心はうんと悪な人だわ。おばあさんばっか追ひ廻してな、気ばっか無暗と強くってな、……」

(「一塊の土」, ちくま文庫, 248ｐ)

아쿠타가와는 전통도덕을 통해 인간의 이기성을 보고 있다. 도덕은 하나의 이상(理想)이 아닌 행위자에 의해 드러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행위자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전통도덕이 완전할 수 없음도 인식하여야 한다.

소세키가 말한 순일무잡(純一無雜)의 상태, 불순함이 없다는 도덕적 이상(理想)은 그 도덕의 행위자가 ‘神’이 아닌 ‘인간’이라는 자각에 의해 변하게 된다. 소세키의 『한눈팔기』에는 양부모의 끈질긴 물질적 요구 앞에 있는 겐조의 도덕관이 드러난다. 소설은 과연 내가 양부모의 물질적 요구에 계속 응대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물건처럼 취급되었던 유년시절의 기억은 양부모의 요구를 매몰차게 뿌리쳐도 될 듯하지만 인간의 도리상 겐조는 그러지 못한다. 도덕이 순일무잡한 완전한 것이라면 그걸 행한 인간 역시 완전한 존재이여야 하겠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33]로, 겐조 역시 도의적(道義的, 형식상)인 물질적 응대는 하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양부모에 대한 증오는 도덕적으로 그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시사한다.

33) ‘인간은 완전한 동물이 아닙니다.’ 김정훈,「문예와 도덕」, 책세상, 145p

시험지를 채점하던 겐조가 시마다의 대리인을 만난 후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하지는 않을까 하여 생긴 두려움은 인간이 감정에 쉽게 치우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이 아닌 이상 늘 공정할 수는 없지.”
-省略-
“신이 아닌 이상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조영석,『한눈팔기』, 문학동네, 261p)

「神でない以上公平は保てない」
-省略-
「神でない以上辛抱だってし切れない」

(夏目漱石,『道草』, 新潮文庫, 273ｐ, 274ｐ)

2.「羅生門」

a. 도덕, 센티멘탈리즘, 딜레마

「羅生門」의 하인은 주인에게 해고된 후 라쇼몽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소설은 하인의 센티멘탈리즘을 극대화시킨 요인으로 비와 하늘모양을 들고 있다.

또한 비와 더불어 배경묘사에서 느껴지는 암담한 현실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하인이 처한 삶과 양심의 딜레마에서 도덕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을 센티멘탈리즘[34] 에서 찾아보고 '불행한 우리들은 언제나 센티멘탈리즘에 좌우된다(不幸なる我々は何時もセンチメンタリズムに動かされている)'는 아쿠타가와의 말을 토대로 센티멘탈리즘과 도덕의 관계를 살펴본다.

하인은 지진과 큰 불, 기근(饑饉)으로 황폐한 교토에 서있다. 라쇼몽의 그로테스크한 묘사는 하인이 처한 막막한 현실을 읽게 한다.

그러자 황폐한 틈을 타서 여우나 너구리가 와서 살고 도둑이 숨어 살았다. 마침내는 연고자가 없는 시체를 이 문에다 갖다버리는 습관마저 생기게 되었다. -中略- 더욱이 지붕 위의 하늘이 저녁놀에 벌겋게 탈 때면 그것들이 깨를 뿌린 것처럼 또렷하게 보였다. 물론 까마귀는 다락(門樓) 위에 버린 시체를 쪼으러 오는 것이다.

(「라쇼몽」, 범우사, 10p)

するとその荒れ果てたのをよい事にして、狐狸が棲む。盗人が棲む。とうとうしまいには、引取り手のない死人を、この門へ持って来て、棄てて行くと云う習慣さえ出来た。-中略-　ことに門の上

34) 신문에 기재된 책의 광고문 중에 인간적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고통, 인간적인 슬픔을 쓴 줄거리 입니다만 실제 쓰여져 있을까 생각하고 읽으면 책 속의 주인공의 고통과 슬픔은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작가의 서투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투를 때는 인간인지 아이스크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만,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것은 오히려 동물적인 주인공이 나올 때가 많다. 이와같이 불행한 우리들은 언제나 센티멘탈리즘에 좌우된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1ｐ, 譯 인용자

の空が、夕焼けであかくなる時には、それが胡麻をまいたようにはっきり見えた。鴉は、勿論、門の上にある死人の肉を、啄みに来るのである。

(「羅生門」, ちくま文庫, 53p)

2~3년 동안 잇따른 재앙과 교토의 황폐한 세태 속에 하인 역시 던져지게 된다. 주인에게 해고된 하인은 라쇼몽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이 비는 하인을 라쇼몽에 고립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나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기보다 '비에 갇힌 사나이가 갈 곳이 없어서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게다가 그날의 하늘 모양도 이 헤이안조(平安朝)를 사는 사나이의 센티멘탈리즘에 적잖이 영향을 주었다. 신시(申時)후반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직도 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쇼몽」, 범우사, 10p)

だから「下人が雨やみを待っていた」と云うよりも「雨にふりこめられた下人が、行き所がなくて、途方にくれていた」と云う方が、適当である。その上、今日の空模様も少からず、この平安朝の下人の Sentimentalisme に影響した。申の刻下りからふり出した雨は、いまだに上るけしきがない。

(「羅生門」, ちくま文庫, 54p)

비로 인해 라쇼몽에 고립된 하인은 자신의 해고된 상황과 황폐한 교토에서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하인의 고립된 상황(극한상황)과 센티멘탈리즘적인 면에서의 하인이 선택할 수단의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심히 센티멘탈한 동물입니다. 본래 센티멘탈리즘(sentimentalism)은 - 일본어로 하면 감상주의(感傷主義)죠 - 그 감상주의는 비판적 정신과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

다. -中略- 그렇다면 비판적 정신의 각성에서 생겨난 오늘날의 도덕 혹은 개인주의 도덕이라 할지라도 이 우리들의 센티멘탈리즘으로 인해 자칫 무비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ｐ, 譯·밑줄 인용자)

人間という者は甚だセンチメンタルな動物であります。本来センチメンタリズムは、— 日本語にすれば感傷主義ですね。— その感傷主義は批判的精神とは両立しない筈であります。—中略— すると批判的精神の覚醒から生まれた今日の道徳あるいは個人主義の道徳といえども、この吾々のセンチメンタリズムのために、頗る無批判的な方向へ発展しないとは限りません。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ｐ)

하인의 '굶어죽느냐, 도둑질을 하느냐'의 딜레마적 상황은 교토의 황폐함, 시체를 쪼으러 오는 까마귀, 화로가 그리울 정도의 추위, 저녁어둠 등이 하인의 감정과 맞물리게 된 상황이다.

하인의 딜레마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다	굶어서 담 밑이나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다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은 하인에게 하나의 수단을 갖게 하고, 이 수단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도덕적 방향과 반대의 경우로 등장한다.

그러면 이 문 위로 실려와서 개처럼 버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가리지 않는다면 – 하인의 생각은 같은 길을 수없이 맴돌던 끝에 마침내 이 대목에 마주쳤다. 그러나 이 '않는다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않는다면'이었다. 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않는다

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뒤에 올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쇼몽」, 범우사, 11p)

そうして、この門の上へ持って来て、犬のように棄てられてしまうばかりである。選ばないとすれば──下人の考えは、何度も同じ道を低徊した揚句に、やっとこの局所へ逢着した。しかしこの「すれば」は、いつまでたっても、結局「すれば」であった。下人は、手段を選ばないという事を肯定しながらも、この「すれば」のかたをつけるために、当然、その後に来る可き「盗人になるよりほかに仕方がない」と云う事を、積極的に肯定するだけの、勇気が出ずにいたのである。

(「羅生門」, ちくま文庫, 55p)

하인의 도둑질이라는 수단은 삶(생계)의 유지라는 조건을 전제하지만 하인의 '않는다면'은 조건이 전제한다는 것[35]과, 도둑질이라는 수단자체가 하인의 삶의 목적으로서만 올바르기 때문에 이 또한 '조건이 없는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정언명령과 대조됨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정언명령만을 도덕적 명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인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음으로 추론해 본다.

굶어죽지 않으려면	도둑질을 해야한다
조건절	수단

하인이 도둑질이라는 수단(手段)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수단이 꼭 '도둑질'이여야 하는 지에 대한 당위성(當爲性)을 묻는 하인을 통해 아쿠타가와는 인간 내면에 있을 일말의 선의지를 보여준다. 하인이 죽은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는 노파를 보고 갖는 악에 대한 반감을 하인의 도덕성의 일부로 생각해 본다.

35) 칸트는 조건이 전제하지 않은 정언명령만을 도덕적인 명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 김영사, 168p참조

그와 함께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이 조금씩 싹터갔다, - 아니 이 노파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른다. 차라리 모든 악(惡)에 대한 반감이 매순간 강도를 더해 간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아까 문 아래서 그가 생각하던 굶어 죽느냐 도둑질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새로 끄집어 낸다면 아마 하인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굶어 죽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나이의 악에 대한 증오심은 노파가 마루에 꽂아 놓은 관솔불처럼 기운 좋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라쇼몽」, 범우사, 13p, 밑줄 인용자)

そそうして、それと同時に、この老婆に対するはげしい憎悪が、少しずつ動いて来た。──いや、この老婆に対すると云っては、語弊があるかも知れない。むしろ、あらゆる悪に対する反感が、一分毎に強さを増して来たのである。この時、誰かがこの下人に、さっき門の下でこの男が考えていた、饑死をするか盗人になるかと云う問題を、改めて持出したら、恐らく下人は、何の未練もなく、饑死を選んだ事であろう。それほど、この男の悪を憎む心は、老婆の床に挿した松の木片のように、勢いよく燃え上り出していたのである。

(「羅生門」, ちくま文庫, 57-58p, 밑줄 인용자)

하인은 노파가 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그것을 선악(善惡)의 어느쪽으로 해석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알지 못한다.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논하는 책을 빗대어 아쿠타가와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꼭 말에 타려고 할 때 오른쪽에서 뛰어 올라타려고 하면 왼쪽으로 지나가 버리고 왼쪽에서 뛰어 올라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버려 언제나 안장을 지나쳐 버리게 되는, 아무튼 중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이라는 곳은 영원히 탈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中略) 이 센티멘털리즘은 어떤 도덕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추세가 도도히 그것에 좌우되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달린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1ｐ, 譯·밑줄 인용자)

かように不幸なる我々は何時もセンチメンタリズムに動かされている。丁度馬に乗ろうとする時に、右から飛

び乗れば飛び過ぎ、左から飛び乗れば右へ飛び過ぎ、何時の鞍を飛び越えてしまうようにとかく中正を失うのです。あるいは人間と云う者は永久に乗れないかも分かりません。―中略― このセンチメンタリズムが或道徳的観方に加えられる。そうすると時勢が滔々として、それに動かされて極端な方向に走る。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1ｐ, 譯밑줄인용자)

아쿠타가와는 인간의 복잡미묘한 감정은 동물적인 주인공에 의해서 잘 드러난다고 말하고 동물적인 주인공이 중용을 잃어버린 상태, 감정적(센티멘탈)인 상태는 인간의 도덕관에도 영향을 끼침을 말하고 있다. 노파를 만난 하인의 감정은 빠르게 변한다.

두려움(恐る恐る)
↓
호기심(強い感情)
↓
증오심(激しい憎悪)
↓
자긍심과 만족감(得意と満足)
↓
모멸(侮蔑)

아쿠타가와는 「明日の道徳」에서 대학교의 친구의 예로 들고 있다.

나는 칸트의 양심의 절대명령에 의문을 갖는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윤리적인 태도에서 행복이나 쾌락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을 버리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 사람조차 이 말을 하는 것은 천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인주의 도덕의 조류에 휩쓸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p, 譯 인용자)

僕はカントの良心の絶対命令に疑問を持つ、どうも吾々の倫理的の態度から、幸福とか快楽を除いては考えられない。そう云う事を捨てる事は人間的でような気がするという。この人さえこの言のある事は、滔々として天下が今日まで、個人主義の道徳の潮流に押流されている証拠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0p)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졸업논문으로 쓴 친구[36], 후지오카 조우로쿠조차도 칸트의 양심의 절대명령에 의문을 갖는다는 것을 통해 아쿠타가와는 선의지의 어려움을 말하고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니노미아 손토쿠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도덕의 모순을 이야기 하면서도 개인주의 도덕 역시 무비판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임을 논하고 있다. 또 다른 딜레마 상황인 노파를 통해 아쿠타가와는 인간의 비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보여준다.

노파의 딜레마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을 수밖에 없다.	굶어 죽는다

노파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죽은 시체들에게 모두 '도덕적 결함'을 지운다. 하인이 도둑질에 대한 수단의 정당성을 찾는 과정이 하인의 도덕성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노파가 죽은 시체들에게 도덕적 결함을 찾는 부분은 노파(인간)의 선험적 도덕성이다.

36) 「明日の道徳」549p 칸트를 졸업논문으로 쓴 친구는 동경제국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한 후지오카 조우로쿠(藤岡藏六) 로 봄. 같은 책 주(4) 참조.

물론 말이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 있는 시체들은 모두 그만한 것은 당해도 싼 사람들이야. 방금 내가 머리카락을 뽑은 계집으로 말하자면, 뱀을 네 치쯤으로 토막내서 말린 것을 마른 생선이라고 하면서 -中略- 그러니 지금 내가 한 일도 나쁜 일로는 생각지 않는다.

(「라쇼몽」, 범우사, 15p, 밑줄 인용자)

「成程な、死人の髪の毛を抜くと云う事は、何ぼう悪い事かも知れぬ。じゃが、ここにいる死人どもは、皆、そのくらいな事を、されてもいい人間ばかりだぞよ。現在、わしが今、髪を抜いた女などはな、蛇を四寸ばかりずつに切って干したのを、干魚だと云うて、--されば、今また、わしのしていた事も悪い事とは思わぬぞよ。

(「羅生門」, ちくま文庫, 60p)

노파의 사고는 하인에게 도둑질에 대한 수단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처음 하인이 내린 도덕적 명령부터 노파가 살기위해 내린 합리화, 이 합리화로 인한 도둑질이라는 수단의 정당성은 모순의 모순을 낳는다. 아쿠타가와는 이런 도덕적 판단의 모순에서 혼동을 읽어내고 있다.

일본의 현재의 도덕 상태는 복잡한, 꽤 혼잡한 것은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이 소용돌이에 인간 본래 가지고 있는 센티멘탈리즘이 각각 더해져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락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도 당연한 것이다.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8p, 譯 인용자)

日本の現在の道徳は状態は複雑な、またかなり混沌たるもののある事は明であります。のみならずこの渦巻へ人間本来有って居る、センチメンタリズムが各々加わって、敵とも味方とも分からないくらい、真赤になってやって居りますから、混乱もまた非常なものであるます。

(「明日の道徳」, ちくま文庫, 558p)

라쇼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주어진 상황과 인간 본연의 본성(감정적)에 의해 좌우되며 인간은 반복되는 딜레마 상황을 끊임없이 마주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3.「鼻」

a. 젠치(승려)의 도덕

젠치의 신분인 승려의 초점에 맞춰 '**승려의 윤리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케노오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긴 젠치를 보고 '코가 저래 가지고서야 아무도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여자가 없으리라'(범우사 64p)며 속인(俗人)이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鼻」에는 대처(帶妻)[37]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대처(帶妻)를 살피기 전에 일반적인 일본 불교의 스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스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② 불교를 공부하고, ③삭발하며, ④법명을 받고, ⑤가사 등 승려의 복장을 하고서 승려가 되어, ⑥절에서 살면서, ⑦장례의식을 비롯하여 의례(法事)를 하는 사람[38]

본래 불교에서는 스님의 결혼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스님의 결혼은 다른 불교국가에서 의문과 비난의 소지가 됨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승려가 되려면 부처님이 정하신 규칙, 즉 계율을 따르며 그것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수계의례(受戒儀禮)를 받아야 비로소 승려가 된다고 한다. 또 정식 승려인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로서 250계(여성은 348계)가 있다. 불음(不淫, 성행위를 하지 않음)· 불상생(不殺生, 사람을 죽이지 않음)· 불투도(不偸盜, 도둑질 하지 않음)· 불망어(不妄語, '나는 깨달았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음)의 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바라이(波羅夷)죄라고 해서 승단으로부터 추방되는 파계이다. 그러므로 승려에게 처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승려를 그만 두어야 할 중대한 파계 행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

37) 『芥川龍之介全集8』,「鼻」, ちくま文庫、64 p

38) 마츠오 겐지 김호성 譯,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동국대학교 출판부, 17p

- 俗

「鼻」에서는 일반인(池の尾の町の者、이케노오 마을사람들)과 승려 젠치에게 있어 **'俗'**의 의미의 차이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케노오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코를 달고 있는 젠치 내공을 위해서 내공이 속인(俗人)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코가 저래 가지고서야 아무도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여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鼻」, 범우사, 18ｐ, 밑줄 인용자)

池の尾の町の者は、こう云う鼻をしている禅智内供のために、内供の**俗**でない事を仕合せだと云った。あの鼻では誰も妻になる女があるま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

(「鼻」, ちくま文庫, 64ｐ 밑줄 인용자)

원문에서 이케노오 사람들이 말하는 '속(俗)'은 '승려가 아닌 일반인, 속인(僧でない一般人。俗人。)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내공의 자존심을 표현하는 문장에는

내공의 자존심은 대처(帶妻)와 같은 결과적인 사실로 좌우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섬세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공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이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鼻」, 범우사, 18ｐ, 밑줄 인용자)

内供の自尊心は、**妻帯**と云うような結果的な事実に左右されるためには、余りにデリケイトに出来ていたのである。そこで内供は、積極的にも消極的にも、この自尊心の毀損（きそん）を恢復（かいふく）しようと試みた。

(「鼻」, ちくま文庫、64ｐ 밑줄 인용자)

이케노오 사람들이 말한 **'俗'**의 의미를 젠치는 대처(帶妻)로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승려 젠치는 속인과 대처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추론해 본다. 아내와 자식을 둔 승려를 속인(俗人)과 같음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승려의 존재, 즉 자신의 존재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게 된 배경

일본 불교의 스님들이 결혼하게 되는 계율학적 배경에는 앞에서 든『사분율』에 의한 수계를 하지 말자는 운동이 있었다. 바로 천태종을 창시한 사이쵸(最澄)의 주장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계를 받아야 하며 소승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사분율』을 수계하지 않는 독자적인 계단을 건설했다[39]고 말하고 있다.

소승불교 (기존의 불교)		대승불교 (새로운불교운동에 의해 일어남)
구카이(空海, 774-835))	창시자	사이초(最澄, 767-822)
X	결혼유무	O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아라한의 경지에 이름 (성문승)		중생들의 교화를 위한 보살사상 중시 (보살승)
진언종	가마쿠라 신불교	천태종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	계율	계율 경시
?	경제적 기반	신자들이나 지역의 장자들이 시주한 토지
장례의식에 참석하지 않음		장례의식에 참석함

【일본 불교 비교】[40]

이를 통해 젠치는 소승불교쪽에 가까운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39) 마츠오 겐지 김호성 譯,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동국대학교 출판부, 17p
40) 표는 마츠오 겐지 책을 읽고 임으로 작성함 것 임. (옮긴이)

- 관승(官僧)

젠치는 관승이었다. 관승은 천황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관승들의 출가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천황에게 있었다. 천황은 누구를, 몇 명을 출가시키는가에 대한 허가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출가희망자는 시경(詩經)이라고 해서 경전 시험을 치러야 했다. 시경에는 법화경과 최승왕경을 음과 훈으로 읽을 수 있는지 전문교학에 능통한지 등의 테스트를 했다.

- 승려다움

플라톤의 사유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다움'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버지다움, 선생다움, 여성다움.....이런 것들이죠. 플라톤에게 'arete'는 곧 '~다움'이예요

(이정우,『개념뿌리들2』, 산해,141p)

승려로서의 젠치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승려다움, 지덕을 겸비한 내공봉승다움이다. 소설은 젠치의 승려답지 않은 모습을 그림으로써 승려의 덕을 드러내고 있다. 젠치는 코가 짧아지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데 이 욕망을 담당하는 계층을 플라톤은 생산자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승의 위치는 이성을 담당하는 계층이므로 지도자계층으로 구분되어야한다고 생각했을 때 코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젠치는 德에서 크게 벗어난 인물임을 알게 한다.

플라톤에게는 영혼의 세 가지 힘이 존재해요. 하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 등을 주재하는 '욕망(epithymia)'이 있고, - 中略 -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 삶을 주재하는 '이성(logos)' 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담당하는 계층은 생산자계층이고, 기개 내지 용기, 의지를 담당하는 계층은 전사 계층이고, 이성을 담당하는 계층은 지도자 계층이죠.

(이정우, 『개념뿌리들2』, 산해,142p)

그렇다면 이성을 담당하는 지도자 계층인 젠치의 덕은 무엇인가. 욕망을 담당하는 생산자계층의 덕은 절제이고, 전사계층의 덕은 용기이다. 이성을 담당하는 지도자 계층의 덕은 지혜(sophia)이다. 젠치가 가져야 하는 덕은 지혜인 것이다.
지덕(知德)을 겸비한 내공봉승의 위치인 젠치의 모순이 드러난다.

Ⅲ. 결론

아쿠타가와의「鼻」,「一塊の土」,「羅生門」의 작품이 가진 모순(딜레마)을 주체와 도덕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인간의 삶은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며 이 '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鼻」의 젠치를 통해 살펴보았다.

젠치 고민(번민)의 가장 큰 근원은 "자기와 타자를 가르지 못함"으로 보았다. 젠치는 '코가 긴 '나'를 인정하기 보다는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온전한 자기의식을 만들지 못하고 늘 타인을 의식하는 불완전한 '나'를 만들게 된다.

'길지 않은 코'에 대한 욕망은 길지 않은 코를 자신보다 더 나은 우위에 둠으로써 발생한다. 길지 않은 코는 젠치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모방해야 할 대상이다. 자신은 길지 않은 코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등감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가 된다. 이 젠치의 열등감을 소세키가 영국유학에서 인식한 주체 즉 자기본위(自己本位)를 통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소세키와 비교하며 찾아보았다.

소설은 방관자의 이기주의로 타자들을 칭하지만 젠치가 알게 된 것은 그의 고통을 다시 고통에 빠트리고 싶어 하는 그런 타자들의 마음이 아닌 사미(沙彌)시절부터의 '긴 코로 인한 자신의 고통'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타자의 인식을 말하고 있다. 방관자적 이기주의가 다시 길어진 그의 코를 밝고 상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간의 방관자적 태도나 무관심은 그에게 소외감과 고립감을 주지만 한편으로 이 깨달음은 이전의 젠치보다 젠치를 더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사실상 타자의 고민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젠치의 구원을 이 방관주의(傍觀主義)라는 말의 모순성에서 찾아보았다. 부처의 묘상이나 소크라테스의 '그대 자신을 알라'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를 젠치의 구원의 길로 보았다.

「一塊の土」의 오타미를 며느리의 모범, 현대판 열녀의 귀감이라는 것에서 근대

화 이전의 봉건적사고가 잔존하는 시대로 추론해보고 봉건사회와 시골, 봉건사회와 여성에 주목해 보았다. 오타미가 존재한 시간, 시대에서 수동성을 읽고 수동성을 띠는 시간은 수동적 종합을 거치는데 그 두 가지는 '생존이라는 조건/틀'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수동적 종합이다. 미망인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의 삶과 봉건사회가 수동적 종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의 '수동성'은 소극성이나 무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합의 주체가 진정 주체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타미의 쉬지 않는 노동을 통해서 자유를 읽어 보았고 그 자유에 의해 烈女로 규정됨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 또한 읽어 보았다. 오스미가 들이고자 하는 '데릴사위'에서 침범에 대한 공포를 보고 오타미와 히로지 사이의 침범(재산을 반으로 나눠야만 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녀가 끝까지 미망인의 삶을 추구한 것은 전통이라는 범주로 억압하려는 사회와 잃고 싶지 않은 자유에 대한 항변으로 해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시된 한 여성(오타미)의 죽음을 통해 인간존재의 허무한 숙명과 고독을 읽어 보았다.

이름 없는「羅生門」의 하인(下人)을 통해 신분에 의한 수동성을 읽고 당장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귀족 중심이었던 헤이안시대에 하인이라는 신분이 갖는 부조리함을 통해 하인의 주체를 읽어보았다.

인식에 의한 주체적 해석을 통해 생명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생명의 문제, 즉 생존경쟁은, "먹히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하인과 노파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으며 생존에 관한 인식은 하인과 같이 낮은 신분의 주체화에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또 주체화란 타자들을 자신아래 복속시킴으로써 성립하며 전통사회에서는 보다 높은 신분에 속할수록 보다 주체적 삶을 살아가고 낮은 신분일수록 객체화됨을 알 수 있었다.

「一塊の土」의 오타미와 오스미를 통해 전통도덕의 모순을 살펴보았고 그 모순의 하나로 열녀와 불효, 충과 불효 등을 들었다. 국가에 유익한 인간, 즉 '忠'이라

는 도덕을 가르침에 있어 부모의 입장은 무시되는 국가의 이기(利己)와 불효(不孝)의 관계를 볼 수 있었고 전통도덕의 이기성을 읽었다.

「羅生門」의 하인이 처한 삶과 양심의 딜레마에서 도덕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을 센티멘탈리즘에서 찾아보고 '불행한 우리들은 언제나 센티멘탈리즘에 좌우된다(不幸なる我々は何時もセンチメンタリズムに動かされている)'는 아쿠타가와의 말을 토대로 센티멘탈리즘과 도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인간에게 있어 딜레마적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반복 될 수 있고 이 딜레마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을 센티멘탈리즘으로 해석하였다.

「鼻」의 젠치의 신분인 승려의 초점에 맞춰 '승려의 윤리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승려 젠치에게 있어 '俗'의 의미와 관승(官僧)의 조건을 통해 지도자 계층으로 젠치의 덕(德)을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기본참고문헌

芥川竜之介全集１、「鼻」、「羅生門」、ちくま文庫、2009

芥川竜之介全集５、「一塊の土」、ちくま文庫、2007

芥川竜之介全集８、「明日の道徳」、ちくま文庫、2007

芥川竜之介全集７、「侏儒の言葉」、ちくま文庫、2007

夏目漱石、『私の個人主義』、講談社学術文庫、2011

진웅기·김진욱, 『아쿠타가와 작품선』,범우사, 2002

김영식, 『라쇼몽』, 문예출판사, 2008

이유정, 『난쟁이가 하는 말』,시학사, 1999

김정훈, 『나의 개인주의 외』, 책세상, 2004

-단행본

이정우, 『개념뿌리들1, 2』, 산해, 2009

이정우, 『주체』, 산해, 2004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 無位人에 관하여』, 그린비, 2009

이정우, 『주름, 갈래, 울림 (라이프니츠와 철학)』, 거름, 2001

박유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문학동네, 2011

마이클 샌델, 안진환, 이수경譯, 『도덕이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2010

마이클 샌델, 이창신 譯,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09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譯, 『실천이성비판』, 아카넷, 2005

루스 베네딕트, 김윤식·오인석譯,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2008

김난희,『아쿠타가와 류노스케』, 한국학술정보, 2008

권혁건,『나쓰메소세키 -생애와 작품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譯, 『일본정신의 기원』, imagine, 2003

마츠오 겐지, 김호성譯『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길희성, 『일본의 정토사상』, 민음사, 1999

송원 스님, 『알기쉬운 관음경』, 창작시대, 2009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9

하태후, 『西方의 사람』,형설출판사, 2000

조영석, 『한눈팔기』, 문학동네, 2011

夏目漱石、『道草』、新潮文庫、2009

- 논문류

金孝順, 『芥川龍之介文化觀』, 筑波大學, 2005

芥川竜之介全集１、「芥川文学の魅力」、ちくま文庫、2009

芥川竜之介全集２　「大正精神の一断面」、ちくま文庫、2011